

고유가·고환율이 직격탄... 하늘길 열렸지만 면세점은 '울상'

해외여행 재개됐지만 실적 고전 강달러에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도 롯데면세점 앞세워 수익 개선 신라·신세계 등 돌파구 모색 분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나오는 면세 쇼핑 안내.

뉴스시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고유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면세점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행객이 늘었지만, 1400원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 탓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은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시중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일부 상품의 경우 면세점 가격이 시중가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요 면세점들은 암울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신라면세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6억원으로 지난해 200억원에서 크게 줄었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기간 5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3분기 매출 558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22.1% 상승한 반면 적자 규모는 37억원 늘어난

150억원을 기록했다.

23일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이 계속 되면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며 "면세점은 달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고환율로 판매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과거 큰손으로 통했던 '중국인 관광객'에게 기밀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지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따라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수익성이 개선된 곳은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는 해외사업에 힘입어

3분기 50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롯데는 2017년 다낭공항점을 시작으로 베트남 면세시장에 진출한 이후 2018년 나트랑캄란공항점과 2019년 하노이공항점을 연이어 오픈했다.

올해도 해외 확장 전략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지난 5월 호주 시드니 시내점을 오픈했고, 최근 베트남 다낭 시내점을 열었다. 내년에는 베트남 하노이 시내점을 오픈하며 판매 채널 다변화를 통해 사업 외연을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롯데는 6개국에서 13개 매장을 운영하

는 등 국내 면세점 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유료 멤버십을 통한 '록인' 전략으로 충성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유료 멤버십인 '신라앤(Shilla & S)'은 이틀 만에 완판됐다. 가입비 50만 원에 고객은 약 70만 원 상당(환율 1400원 기준)의 면세점 포인트 외에도 웰컴 기프트와 신라호텔 및 노랑풍선 등과의 제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대표 멤버십 혜택으로는 서울점 컨시어지 라운지 상시 이용 및 3시간 무료 발레주차 서비스와 인천·제주공항 면세품 인도장 우선 인도 서비스 등이 눈길을 끈다.

신세계면세점은 단독 팝업스토어를 유치해 다양한 소비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면세점 단독으로 윈터 스포츠 콘셉트의 구찌 선글라스 팝업 매장을 명동점에 오픈, 12월 31일까지 약 2달간 운영한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인 위블로(HUBLOT) 부티크를 오픈하고 올해 출시된 신상품도 단독으로 선보이는 등 상품 소싱 차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입찰 역시 업계

의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제1여객터미널(T1) 매장 9개와 제2여객터미널(T2) 매장 6개에 대한 면세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T1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영업을 어려웠던 시기에 인천공항공사가 고정 임대료를 받으려 했다가 수차례 유찰된 바 있다. 실제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6개 매장 중 4개 매장은 공실 상태고, 2개 매장은 타 사업자가 임시 매장으로 운영 중이다.

T2 매장 6개는 내년 1월 중순 계약이 종료된다. 통상 입찰은 사업 종료 6개월 전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사업자 선정 후 운영까지 최소 4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입찰 공고가 계속 미뤄지면 면세점들의 내년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공고가 미뤄지는 이유는 임대료 산정 방식 때문으로 보인다"며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고려해줄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계는 수익과 연동되는 '매출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수익과 관계 없는 '고정 임대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K바사 "스카이코비원 생산중단 아닌 대기"

초도물량 이후 추가 완제만 멈춰 정부 요청 따라 생산·공급 재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토종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생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생산을 대기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외 판매를 위한 글로벌 허가 역시 연내 승인을 목표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낮은 접종률로 인해 초도물량 이후 추가 완제는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정부 요청에 따라 생산 및 공급 재개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전일 한 매체가 스카이코비원 생산이 중단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 공시였다.

회사측에 따르면 정부와 1000만도즈 선구매 계약에 따라 지난 9월 초도물량 60만도즈를 공급했지만 초도물량은 아직 다 소진되지 못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백신 완제는 생산하지 않지만 원액은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생산 중단이라기보다 언제든 주문에 따라 생산이 가능한 생산 대기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스카이코비원이 생산 대기 상태가 된 것은 낮은 접종률에 있다. 지난 9월 19일 접종이 시작된 후 지난 20일까지 스카이코비원을 맞은 사람은 3665명에 그쳤다. 11월 들어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받은 사람은 493명뿐이다.

추가접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도 있지만,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2가 백신에 밀린 영향도 컸다.

하지만 회사측은 스카이코비원이 저개발국을 겨냥해 개발된 만큼 아직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스카이코비원은 보관과 유통이 용이한 '합성항

원'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초저온 설비를 갖추지 못한 중저개발국 보급에 용이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 영국과 유럽 의약품청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고, 지난 9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스카이코비원 긴급사용목록(EUL) 등재 신청을 한 상태다. 유니세프(UNICEF), 범미보건기구(PA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글로벌 기관 및 단체 등이 주관하는 국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WHO EUL 등재가 필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백신의 완제와 원액 생산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췄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동국제약을 포함해 코스닥기업 51개사를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으로 확정하고, 여의도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동국제약,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

동국제약이 최근 코스닥 블루칩 기업인 '코스닥 글로벌'에 편입됐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동국제약을 포함해 코스닥기업 51개사를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으로 확정하고, 여의도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출범

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은 제약 및 바이오 11개사, 반도체 15개사, 서비스 및 콘텐츠 14개사, 제조업 11개사 등 코스닥을 대표하는 산업군에서 고르게 편입됐다.

이세경 기자

JW중외제약 美 연구법인, 보스턴CIC로 이전

美 바이오 클러스터 네트워크 확장 중개연구, 기술이전 등 확대 계획

JW중외제약은 미국 연구법인 JW세리악(JW Theriac)을 샌디에이고에서 보스턴 소재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로 이전했다고 23일 밝혔다.

JW세리악은 JW중외제약이 2000년 미국 시애틀에 설립한 화학유전체학 전문 연구소다. JW중외제약 국내 신약연구센터와 함께 윈트(Wnt) 신호전달경

로 타깃 혁신신약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8년 샌디에이고로 이전해 JW그룹의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JW세리악 보스턴 이전을 계기로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JW의 R&D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임상·임상 중개연구, 기술이전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시장 정보 수집과 함께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사와 유망 바이오벤처, 세계적 권위의 병원 및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클러스터다. 전 세계 1000여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 거점을 마련해 2조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연구법인 이전은 JW중외제약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과 무관치 않다. JW중외제약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자체 R&D 플랫폼 확장을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기관들과 다양한 협업을 맺고 있다.

이세경 기자

중근당 국제학술지에 황반변성치료제 게재

'루센비에스' 임상 3상 결과

중근당이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의 임상 3상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루센비에스는 라니비주맙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순도의 루텐티스 바이오시밀러로 중근당의 순수 독자 기술인 항체절편 원료제조 기술로 양산돼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에 사용되는 안과질환 치료제다.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 2023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중근당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3

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25개 병원에서 총 312명의 신생황반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환자를 대상으로 루센비에스의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임상 3상에 따르면 약물투여 후 3개월 시점의 최대교정시력(BCVA)을 비교하는 1차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15글자 미만의 시력 손실을 보인 환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루센비에스 투여군에서 97.95%(143/146명), 오리지널 약물 투여군에서 98.62%(143/145명)으로 확인돼 두 약물간 동등성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